

# 참 종교란 무엇인가

## 종교의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것이다

종교는 신에 대한 것이며 그 목적은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신은 영이요, 영은 마음입니다. 종교는 천국을 이룬 인간의 마음 속에 존재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데 영원히 사는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참 종교인 것입니다. 변치 않는 것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천국을 이루는 것이므로 신의 학문이 곧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신이란 것은 곧 영이요, 영이라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종교가 존재한다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신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신학을 논한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성경에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라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호 14:5)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은 이긴자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긴자에게 이슬과 같이 입한다는 말이요, 그 이긴자가 백합화 같이 핀다는 뜻입니다. 합동 찬송가에도 '구주는 산곡에 백합 명란한 새벽별 만인 위에 뛰어나시는 줄세'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구세주는 백합화'라는 찬송을 매일 하고 성경에 이슬이 내리는 이긴자가 백합화같이 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늘 읽으면서도 이것을 깨닫는 자가 없었습니다. 구주는 명란한 새벽별이라고 했으니 그것은 '밝은 별'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종교

또한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준다고 했는데 새벽별이 이 세상의 별이라면 효성과 금성을 말하는데 효성과 금성은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새벽별에 해당하는 이름을 준다고 해야 이치가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구세주의 이름이 밝은 별(熙星)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예언서 '격암유록'에도 이 사람의 성과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그동안 말한 대로 온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다가 맞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이후로 계속해서 장마를 못 지게 하고 태풍을 불어오지 못하게 하여 풍년들게 하고 세계 공산주의를 없앤다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죽지 않는 비결의 말을 과학적으로 논합니다. 구세주는 죽지 않는 비결을 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학을 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성경이나 불경에는 써어 있지만 이 사람은 그 위에 피가 썩어서 죽는 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의식이 육신만 부리면 피가 썩습니다. '나'라



구세주 조희성님

는 의식이 신경질 내고 화를 내도 피가 썩습니다. 피가 썩지 않는 비결만 알면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성경이나 불경에서 왜 '나'를 항상 버려라'고 했느냐 하면 '나'라는 의식이 조종하는 대로 생각만 하게 되면 피가 썩는다는 것을 이 세상 과학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나를 버려라'라는 말은 내 마음을 버리라는 말이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는 말은 바로 내 마음 안에서 행치 말라는 말이요, 내 마음이 주장하는 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수박겉핥기로 성경과 불경을 읽으면서 도를 닦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나'와 더불어 평생을 투쟁해서 '나'를 이긴 자입니다. 나를 완전히 이겼으므로 죽지 않는 비결을 압니다. 생각하는 대로 피가 변하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피로 변하여 썩지 않는 피로 변합니다. '사람은 생각 대로 논다.'라는 말이 있는데 평상시에 악한 마음을 먹으면 악한 피로 변해서 얼굴과 몸이 악한 얼굴과 몸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인상이 나빠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한다는 것은 새로운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날 과학자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은 영생의 신이요, 영생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영생의 피로 변하면서 하나님의 얼굴과 몸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늙을래야 늙을 수 없는 몸으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마음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또 영생의 확신을 가지려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생명과일을 먹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생명과일이요, 생명과일은 성경말이요, 성경말은 영적 말이요, 영적 말은 하나님 말이므로 생명과일은 영적 과일입니다. 바로 영생을 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생명과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자가 진짜 구세주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자가 진짜 구세주인 것입니다. 성경이나 불경, 격암유록에는 이슬을 내리는 자가 구세주요, 생미특불이요, 정도령이라고 했습니다. 정도령이 나오면 천지가 개벽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세상 사람들은 영이 무엇인지 신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생명이 영(요한 1:1)'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명이 피요 피가 생명(레 17:11)'이라는 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피착용이 마음작용이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잠 4:23)는 말과도 짝이 맞습니다.

죽 마음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영이라면 마음작용은 피작용이므로 피가 곧 영이라는 말입니다.

죽은 사람의 피가 죽은 사람의 영이요, 그 피는 썩어서 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자식

들 속에 있으므로 죽은 사람의 영이 천당 갔다 지옥 갔다고 하는 것은 헛소리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피가 후손들 속에 있으므로 현재 살아 있는 사람의 핏속에는 조상 대대로의 영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태초의 조상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의 영도 우리 몸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던 것입니다.

### 종교는 영원히 사는 인간의 마음 속에 존재

종교의 근본목적은 진리 구현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나와야 종교가 존재하는 것이 교회만 짓는다고 종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영원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마음이지 죽는 마음은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천국을 이루어야 종교가 되는 것은 있는데,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마음속에 있나니라'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어야 참 종교인 것입니다.

변치 않는 것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천국을 이루는 것이므로 신의 학문이 곧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신이란 것은 곧 영이요, 영이라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속에 종교가 존재한다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 [연재] 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 피의 작용

# 피가 곧 마음이다



### 피는 영혼의 거주자

피가 생명이라는 것까지 앞에서 살펴 보았다. 그런데 피가 마음이라고 하면 고개를 가우뚱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를 직관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확실한 논증을 제시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애써 우리가 조금만 깊이 과학적으로 파고들면 쉽게 수궁이 가게 되는데 고정화된 사고 구조를 유연하게 가지면서 사실을 확인해 보자.

먼저, 피가 마음이라는 결론을 내려 놓고 이를 증명해 나가게 되는데 직관력에 의한 증거는 부족하다.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성경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혼이 핏속에 깃들어 있거나 피와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까닭에 피를 먹는 것은 금기시되었다.

17세기의 생리학자인 갈레노스는 핏속에 영이 가득차 있음을 말했고, 근래에 와서 하이버 역시 피를 영적인 액체이며, 생명의 원리라고 하였다.

그래서 피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했다. "피는 천상계에 속하며 별들의 본질에 대해 답하는 영혼이며, 정신의 거주자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하늘, 하늘의 기구, 그리고 하늘의 대리(代理)와도 유사한 것이다."

### 혈액형과 성격과의 상관관계

영성(靈性)과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피를 영혼 그 자체라고 말해 왔다. 사실 피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생명성, 또는 신비스러운 뭔가를 느끼게 된다. 또 직관에 의한 관찰은 피가 모이는 장기를 핏주머니(血囊)라 하지 않고 마음 주머니(心臟)라 부르는 것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말뿐만 아니라 영어권에서조차 하트(heart)라는 단어는 심장과 마음이라는 뜻으로 동시에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흥미롭게 혈액형에 관련지어 성격을 말하면 접근이 더욱 용이하다. 가끔 친구나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네 혈액형이 A(혹은 B, O, AB)형이 아니냐?"하고 묻곤 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라는 대답을 한다.

이러한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은 했을 것이다. 사실 잡지책이나 스포츠신문을 보면 혈액형과 성격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 놓은 코너를 자주 접한다.

들여다보면 A형인 사람은 꼼꼼하고 신중한 편이며 B형은 부드러운 사교적이다. 또 O형은 고집이 세고 과격하다. AB형은 우유부단하며 천재가 많다. 이와 같은 혈액형과 성격과의 관계는 통계적인 관찰에 의한 결과다.

### 마음에 의해 피가 변하고 몸이 만들어진다

또 생명 탄생의 신비적인 쌍둥이에 관한 예를 들어보자. 쌍둥이는 같은 시기에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된다. 한 개의 수정란이 분열하는 과정에서 두 개로 갈라져 생겨난 쌍둥이가 일란성 쌍둥이다. 그래서 그들의 생김새뿐만 아니라 성격도 유사하다. 그러나 연년생은 해를 걸러 태어나서 털 달아 있고 성격과 얼굴 생김새도 다르다.

이러한 사실은 피의 동질성으로 인하여 그 성격과 생김새도 유사하다는 것을 잘 나타내 준다. 심리학자들은 쌍둥이에게서 인격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요인, 즉 유전적 혹은 환경적 요인을 뚜렷하게 밝혀낼 수 있다고 한다.

좀더 명백한 근거로 아이를 밴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한 태교(胎敎)를 들 수 있다. 임신부가 태중에 있는 아이를 위해 모든 일에 대해서 조심해야 하고 나쁜 생각이나 거친 행동을 삼가며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야 한다.

임신 중 어머니의 마음가짐과 언행 및 주위환경이 태아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존속되어 온 경험적 지혜이다. 특히 서양에서는 의학적 연구를 통하여 임신 중 어머니의 심리적·정서적 상태가 태아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규명, 많은 관심을 모으기도 하였다.

또한 피는 사람의 성격뿐만 아니라 감정과도 관계가 깊다. 감정에 따라서 얼굴색이나 맥박 혈압 등이 즉각 반응한다. 예를 들어 수줍음을 느낄 때 얼굴이 붉어진다든가, 실망을 하여 마음이 괴로울 때 얼굴빛이 어두워지며 침울해진다든가, 열 받을 때 얼굴이 붉으라푸르라 한다든가 하는 등이다.

이것은 마음에 따라 얼굴에 흘러드는 혈액량과 색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 혈색만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랜 인류의 관찰에 의한 경험과 지식의 산물이다.

### 만병의 근원이 뒤틀린 마음, 그 마음에 의해 혈액의 오염

한편 일본의 저자 오카다 이코(岡田一好)박사는 30여 년 이상 고유의 '기적의 혈액건강법'을 내세워 '혈액의 오염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분이다.

서양의학을 배우면서 선을 배워 동양의학에 깊이 심취하고, 근대의학의 대증요법에 반발, 근본 치료(혈액건강

법)를 지향해 현실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혈액건강법>은 일본에서 300만 부 이상이 판매된 건강베스트셀러이다. 오카다 이코 박사는 암의 발생 원인과 진단, 처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리고 있어 흥미롭다.

혈액의 산성화가 진행되면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 지수도 높아져 더욱 산성화를 촉진하고 심신은 결국 스트레스와 혈액의 산성화에 견딜 수 없게 된다. 그 예비수단으로 암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때 만일 암이라는 방어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심인성 스트레스병(심장병, 자폐증, 급성 위궤양, 고혈압 등)에 걸려 어느 날 갑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했다.

결국은 혈액의 산성화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심인성(心因性)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결국 혈액의 산성화는 마음이 받은 스트레스가 크나큰 요인이라는 말이다. 이로 말미암아 피가 마음이고, 마음이 피라는 과학적 합리적 결론이 정확히 성립된다 할 것이다.\*

김주호 기자